

1971

아시아 속에서의 한국 YWCA

박 영 숙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여성위원장)
(Y연합회 홍보·조사위원회위원)

20년전 덴마크에서 개최되었던 YWCA 세계대회에서 있었던 일로서[아직도 나의 기억에 남아 있는 한 장면이 있다. 그것은 어느 전체회의에서였다. 몸집으로 말하면 우리의 두세배나 되는 거구의 아프리카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새털처럼 가벼운 몸짓을 하며 하던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 내용을 지금 더듬어 보면 이런 것이다

백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자기나라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디에서건 음물이 들려오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동적으로 영당을 덩실거리며 춤추는 것이 그들의 생활습성의 하나였다고 한다. 그런데 백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런 그들의 자연스러운 감정노출이 죄악시 되었다는 것이며 그밖에 기독교가 그들의 문화를 전면 부정한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었다.

그 대회에 참가한 회원국들 중에는 물론 자립하는 국가들도 있었으나 소수의 원조국과 다수의 피원조 회원국들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그 당시의 우리나라 YWCA는 피원조국의 일원이었으며 주로 미국의 많은 원조를 받고 있었다. 원조국에 속하는 대국의 YWCA들이 오늘날 제3세계가 비판하듯이 오만, 자기만족, 자기이윤 추구, 그리고 속죄의 방편으로 자선을 베풀었던 ~~것을~~ 부러지게 말할 수 없으나 한가지 분명했던 사실은 피원조국들의 비판을 받아들일 정도로 너그럽지 않았던 것

만은 분명하다. 「원조받는 주제에」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반면 피원조국들은 베풀어주는 자선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물론 모르는 사이에 익혀진 그들의 시각으로 모든 사물을 판단하는가 하면 투표권 행사에 있어서도 눈치를 보아야 했으며 그들의 우산 밑에서 안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식민지하에서 눌러 산 피원조국의 아프리카 대표가 당당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며 문제를 근원적으로 들여다 보는 그의 시각이 더욱 인상 깊었었다.

오래되고 당연한 일을 왜 「얘기 좀 합시다」에서 회상하고 있는가? 그것은 금년도 1월호의 세계 YWCA 아시아 지도자회의 보고를 읽으면서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애깃거리가 생각나서이다.

먼저 한국 YWCA는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아시아에 좀더 눈을 돌리되 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의 눈으로 보라고 말하고 싶다. 해방 이래 우리 나라의 진영화된 정치적인 흐름과 YWCA의 원조·피원조국 사이의 보이지 않는 분위기가 우리에게 아시아를 알지 못하고 지나는데 별 불편을 주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 결과가 오늘에 와서 그들은 우리를, 우리는 그들을 전혀 모르게 만들었다. 특히 그들이 우리나라를 미국진영의 일원으로 밖에 간주하지 않고 있는 점은 고쳐 주어야 할 것이다.

가지 열거하면, ① 두 사람 이상의 증인들은 서로가 증언의 내용을 알수 없게 단독적으로 증언해야 하며, ② 증인들의 증언들이 일치하지 않고 서로 상충될 때, 모든 증언은 모두 무효가 된다. ③ 증인은 증언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재판관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만일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그러한 증언과 판결은 무효가 된다. ④ 다음의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즉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피고인과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즉 부모, 형제, 삼촌, 사촌, 장인, 장모등), 피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피고인과 원한이 있거나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이해관계나 의견의 충돌때문에 3일 이상 서로 말하지 않는 일이 있는 사람들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증언의 공정성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없게 하였다.

× ×

제 9계명은 좁은 의미로서는 재판의 상황에서 거짓 증언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이 계명은 모든 형태의 부정직한 말을 금지하는 것이다. 즉 거짓말, 허위의 사실을 조작, 날조하는 말, 악의로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모략하는 말들은 모두 이 계명과 관련된 것이다.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말

하는 사람들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즉 성전)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 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시101:7)」.

한편,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편 15편의 말씀을 따르면「.....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 (=남을 헐뜯고 중상함) 치 아니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시 15:2).

주전 7세기 말에 활동하였던 예언자 스바나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꾀술한 혀가 없는자」만이 구원받는 「이스라엘의 남은자」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였다(슥 3:13). 또한 신약의 요한계시록에는 앞으로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거짓말 하는자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계 21:27; 22:15). 거짓이 없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제9계명에 명백한 위반이다. 동시에,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경우에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을 지키는 것도 똑같이 제 9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행동이나, 소극적으로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을 지키

는 것은 똑같이 정의의 실현을 막는 행동이요, 제 9계명에 저촉되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작위적(作爲的)인 죄라면, 진실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부작위적(不作爲的)인 죄이다. 구약은 이 점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가리라(레 5:1)」.

진실을 알고 있고, 또 진실을 말해야 할 경우에 침묵을 지키는 것은 분명히 「거짓증거」가 되는 것이요, 「침묵의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제 9계명은 이렇게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 양면이 있다. 능동적인 거짓과 허위의 말을 금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수동적인 「침묵의 거짓말」도 금지하는 것이다. 순교자들은 왜 순교를 당했는가? 만일 그들이 「침묵」을 지켰다면, 만일 일시적인 거짓말을 하였더라면, 그들은 비참한 순교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침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것이다. 그러기에 제 9계명은 진실과 허위, 침묵과 외침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현대인들에게 실존적으로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계명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주어지고 있다.